

“안산, 올림픽 직전에 슬럼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송철석 코치가 밝힌 금메달 비화

대회 10여일 앞두고
체력 부족에 왼팔 무너져
과감하게 자세 교정
랭킹라운드 바로 전에
본래의 감각·폼 되찾아

“대회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안산이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송철석(51·광주체고 감독)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코치는 27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안산(광주여대·20)의 국가대표로서 훈련 과정을 이야기했다.

송철석 감독은 광주체고 1학년 때 국가대표로 발탁돼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선수 출신이다. 그는 2001년 광덕고 남자양궁팀 감독으로 부임해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부터 광주체고 양궁팀 감독으로 부임해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안산을 비롯해 박현수, 임지환 등 고교생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대한민국 올림픽 양궁 역사상 고교 감독으로서 국가대표 코치로 발탁된 이이다. 송 코치는 진천선수촌에서 안산을 도맡아 지도했다.

하지만 안산이 올림픽 개막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다.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것과 달리 활을 잡는 왼팔이 체력부족으로 급격히 무너지면서 본래 자세가 흐트러진 것이다. 활을 잡는 버팀목이 무너졌으니 활이 과녁을 번번이 빗나갔다. 송 코치가 자세를 잡아주면 다시 흐트러지기를 반복했다.

송 코치는 고민 끝에 안산의 스승인 광주여대 김성은 감독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 감독은 한 달음에 진천선수촌으로 달려왔다. 큰 대회를 앞둔 안산에게 부담이 될까봐 김성은 감독이 진천선수촌 근처에 출장 와서 잠시 들른 것으로 했다. 김 감독은 “활과 화살이 수직과 수평이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고 진단했다.

대회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선수의 폼을 뜯어 고치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선블리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송철석(왼쪽) 코치가 안산과 금메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송철석 코치 제공>

자세를 수정했다가 페이스가 망가져 대회를 망칠 수 있어서다. 고친 자세를 터득하려면 10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올림픽을 바라보는 한 선수의 꿈과 미래에 걸린 사안이라서 고민이 깊어졌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잠을 못이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안산의 스승인 김성은 감독이 밀어붙이자고 제안한 덕분에 과감하게 스탠스 수정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이 현재까지 금메달 2개를 따낸 덕분에 우리 두 사람이 웃게됐습니다.”

폼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이상 어떻게 변경할지가 관건이었다. 어깨를 타기 방향으로 향하게 한 뒤 이를 받쳐주는 자세로 교정했다. 영특한 안산은 지도자들이 제시한 폼으로 수정한 끝에 남녀 혼성전에 출전할 선수를 뽑는 랭킹전이 열리기 전날 원래의 감각과 폼을 되찾았다.

“김 감독이 일본에서 랭킹라운드 하기전까지 폼을 완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이 판단이

제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확한 판단입니다. 바뀐 폼을 그렇게 빨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선수는 매우 드물어요. 안산이 그래서 뛰어난 선수입니다.”

안산은 신세대답게 쿨하고 멘탈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송 감독은 대회기간 멘탈 부문에서 안산에게 해줄 말이 없었다고 한다. 올림픽이라는 초대형 무대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성전 출전을 앞둔 예선 랭킹라운드에서 산이가 64년 사대에 쏘셨습니다. 한테 산이의 사대 앞 2~3m 지점에 일본 사진 취재기자 등 10여명이 진을 치고 셔터를 눌러대는 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산이 금메달을 따낸 뒤 ‘코치님 미워요’라고 말할 때 저도 울컥했습니다. 안산의 독특한 표현으로 고맙다는 말이거든요. 개인전에서도 틀림없이 성과를 낼 것으로 믿어요.”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울어버린 ‘탁구 요정’ 신유빈 … “단체전 메달 꼭 딸 겁니다”

탁구 여자 단식 3회전에서 ‘무릎’

“이기고 싶은 마음에… 너무 세계 나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처음으로 패배의 쓴맛을 본 ‘탁구 요정’ 신유빈(17·대한항공)은 그만 울어버렸다.

신유빈은 27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3회전(32강)에서 홍콩의 두호이켄에 2-4(10-12 5-11 11-8 11-8 4-11 6-11)로 무릎을 꿇었다.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기량이 확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았던 신유빈은 주목 받지 않고 도전했다.

1회전에서 가이아나의 켈시 에질을 가볍게 꺾더니 2회전에서는 58세 ‘백전노장’ 니시아렌(룩셈부르크)과 혈투 끝에 4-3 역전승을 거둬 국민들에게 ‘탁구 보는 재미’를 오랜만에 일깨워줬다.

그러나 탁구 대표팀 막내의 질주는 3회전에서 멈추고 말았다.

신유빈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한동안 울적거리기만 했다.

울음을 그친 신유빈은 소감을 묻는 말에 “진 게 아쉽긴 하지만,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신유빈은 첫 두 세트를 내줬지만 이내 세트 스코어 2-2로 균형을 맞추며 자신(세계 85위)보다 랭킹이 70위나 높은 두호이켄(세계 15위)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후 두 세트를 다시 내주면서 졌다. 동점을 만든 뒤 이기고 싶은 마음에 너무 급하게 나간 것에 크게 아쉬움이 남는 듯했다.

신유빈은 “너무 세계 나간 것 같아요. 첫 세트에서 이기다가 진 것도 아쉬워요”라고 울먹이며 말한 뒤 다시 좀처럼 말을 잊지 못했다.

이어 “하지만 선수라면 이기고 싶은 게 당연한 것 같다”라고 조금은 의연해진 말투로 말했다.

비록 세 겹에서 멈췄으나 첫 올림픽 무대에서 보여준 신유빈의 경기력은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했다.

신유빈은 ‘언니’ 전지희(포스코에너지), 최효주(삼성생명)와 함께 나서는 여자단체전에서 마지막 메달 도전을 한다.

신유빈은 “남아있는 단체전에서 꼭 메달 딸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유빈이 27일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탁구 개인전 홍콩 두호이켄과 경기에서 패배한 후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수영 여자 개인혼영 200m 준결선에 출전한 한국 김서영이 레이스를 마친 뒤 울먹이며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영장에 눈물 쏟은 김서영

세 번째 올림픽 결승 진출 실패
“내 기록만 냈어도 … 속상해요”

세 번째 올림픽 물살을 가른 김서영(27·경북도청)이 주 종목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는 눈물을 쏟았다.

김서영은 27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경영 여자 개인혼영 200m 준결승에서 2분11초38의 기록으로 2조 7위, 전체 16명 중 12위에 머물렀다. 이로써 김서영은 상위 8명에게 주는 결승 출전권을 놓쳤다.

김서영의 이 종목 최고 기록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때 작성한 한국 기록 2분08초34다.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기록만 낸다면 메달도 가능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준결승에서 탈락한 것은 김서영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경기 후 울면서 풀을 떠난 김서영은 공동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2m 거리를 두고 마주 선 뒤로도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김서영은 계속 울었다. 눈물을 감추려는 듯 잠시 뒤로 돌아서기도 했다. 마스크를 하고 있었음에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1분여 만에 어렵사리 말문을 연 김서영은 “오늘 경기 전까지도 자신 있었고 해 보자는 마음으로 틀어갔다. 100m까지는 처음부터 자신감 있게 가려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고 레이스를 돌아봤다.

김서영은 “아쉽게 마무리돼 많이 속상하다”면서 “마음처럼 경기가 되지 않아서 저도 지금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 제약이 따라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서영은 이를 성적 부진의 구실로 삼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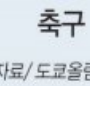
그는 “모든 선수가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 거라 적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서영은 2012년 런던 대회부터 3회 연속 올림픽 물살을 갈랐다.

이번 대회 개인종목은 개인혼영 200m에만 출전했다. 다른 개인종목도 뛸 수 있었지만, 오직 메달 획득을 위해 주 종목인 개인혼영 200m에만 집중한 터라 아쉬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김서영의 이번 대회 개인종목 경기는 이날로 끝났지만, 그는 28일 오후 예선을 치르는 단체전 경영 800m에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28일)	
	오전 9시 30분~ 남자 개인전 김우진, 오진혁, 김제덕 여자 개인전 강채영, 장민희, 안산
	오전 10시 남자 사브르 단체전 오상욱·구본길·김정환·김준호
	오전 11시 남자 90kg급 32강 광동한 여자 70kg급 32강 김성연
	오후 5시 30분 남자 조별리그 3차전 한국 - 온두라스
자료/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연합뉴스